

오피니언

다산포럼

정지창



광고의 마력을 얘기할 때 내가 빠뜨리지 않고 드는 두 가지 사례가 있다. 하나는 국내의 우수한 화장품회사에서 내보낸 텔레비전 광고다. 이 광고는 이른 새벽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의 풀잎에 반짝이는 이슬방울과 함께 아름다운 여배우의 해맑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서 '천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000 화장품'이라는 광고문을 들려준다. 이 광고를 보고 듣는 여성들은 마치 이 화장품을 바르면 맑고 깨끗한 아침이슬 같은 천연의 아름다움을 가지게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인공미가 아닌 자연미를 천연의 아름다움이라 부른다면, 천연의 아름다움이란 화장품은 아예 바르지 않은 자연상태의 맨얼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얼핏 보면 그럴듯한 화장품 광고의 문안은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억지소리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 광고가 많은 여성들에게 먹혀드는 것은 아름다운 영상과 '포로록'

구르는 이슬방울 소리(실제 포로록 소리를 내며 구르는 이슬이 어디 있는가!), 해맑은 여배우의 얼굴 등이 만들어내는 영상효과가 너무 멋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광고문의 달콤한 속삭임을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 말고 또 하나 예로 드는 것은 한 다국적 식품회사가 아프리카에서 분유를 팔아먹을 때 쓴 광고 기법이다. 이 회사는 흰색 기운을 입은 방문 판매원들을 마을에 보내 분유를 판매했는데, 모유를 먹던 아프리카의 엄마들은 간호사나 의사 비서 한 인상을 주는 판매원들에 속아 비싼 돈을 들여 분유를 사 먹었고, 그 결과 많은 아기가 감염으로 죽고 말았다. 병장고나 위생시설이 변변치 않은데다

열대지방의 무더운 날씨로 세균의 번식이 빠른데도 우유병을 끓는 물에 철저히 소독하라고 가르치지 않은 탓이다. 결국, 한 시민단체는 이 회사를 살인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에 이른다. 그 후 이 회사가 어떤 처벌이나 제재를 당했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분유회사가 우양아선발대회를 열고, 산부인과에서도 신생아에게 무조건 분유를 먹인 적이 있다는 것만을 기억할 뿐이다. 요즘은 젊은 엄마들도 웬만하면 다 모

유를 인공으로 조성한 잔디공원, 강변 모래사장을 걷어내고 만든 자전거도로를 멋지게 사진과 영상에 담아 '4대강 살리기'라고 포장하여 선전한다. 실제로 이런 그림과 영상을 본 도시 사람들, 특히 굵이 굵이 흐르는 강물과 백사장의 아름다움을 체험하지 못한 젊은 사람들은, 그저 참 멋진데, 하고 곧잘 속아 넘어간다. 4대강 사업은 마치 해맑은 산골 처녀의 얼굴을 성형수술하고 화장품을 쳐발라 인공 미인으로 만든 다음 미스코리아로 뽑아 상품화하는 것과 흡사하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이 천연의 아름다움보다 인공의 아름다움을 좋아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세상이 온통 성형미인들로 넘쳐나면 머지않아 가공하지 않은 천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소박한 얼굴을 선호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미의식은 시대에 따라 바뀌고, 관측광고의 속임수도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니까. 분유보다 모유가 아기 건강에 좋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영남대 독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공미와 자연미

유를 먹고 있다. 모유를 먹어야 아토피 같은 난치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화장품도 요즘은 자연산 재료를 쓴 화장품이 인기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광고의 속임수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은 화장품회사나 분유회사만은 아니다. 이른바 '4대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국토과과 행위도 처형처형한 물에 떠 있는 유럽선과 자연 생태적인 모래선

시설

여수박람회 '총체적 부실' 이대론 안 된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과연 제대로 개최될 수 있을까.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만 놓고 본다면 개최 시 국제적 망신을 살 수밖에 없다. 개막을 불과 1년8개월 남긴 시점에서 성공 개최를 담보할 주요 기반시설이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은데다 참가국 유치 역시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박람회 유치 과정에서 2011년까지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도로·철도·공항 등 상당수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다. 서울~여수 간 철도 운행시간을 2시간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전라선 고속화사업을 비롯해 여수공항 활주로 확장(2100~2800m) 및 전주~광양~여수 간 고속도로 건설 등은 시기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해 접근성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6개 주요 사업 중 주재관, 국제관, 해상호텔 등 핵심 12개 사업은 아직까지 사업자조차 선정되지 못해 이달 착공이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태다. 1534억원을

목표로 한 민간 기부사업은 실적이 아예 없다고 한다. 전남도 태도 역시 한심스럽다. 최근 전남에서 열린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에 도 관계자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해당 위원회가 공식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더니 말이다. 참가국 유치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위도 비판에 자위스러울 수 없다. 공식 참가 의사를 밝힌 65개국 중 G20 국가는 고작 12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총체적 준비 부실은 결국 나라 망신을 시키는 일이다. 세계박람회 '경제올림픽'이라 불릴 정도로 올림피아나 월드컵 못지 않게 영향력이 큰 국제행사가 아닌가. 이제 원점에서 모든 현안에 대한 지원과 역할 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정부가 서야 한다. 정부가 지자체와 조직위를 밀고 끌어다 지 뒷전에 있다면 성공 개최는 불가능한 일이다. 상하이엑스포가 말해주고 있다.

화장시설 부족해 제때 장례 못 치러서야

최근 장묘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했다. 화장률이 현재 70%에 이르고 매장 관습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앞으로 이 같은 장묘문화의 변화는 더욱 가속될 게 확실하다. 하지만, 화장시설이 장묘문화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영랑공원의 경우 지난해 하루 평균 13건이던 화장이 올해는 20건으로 급증했다. 아직은 하루 최대 수용 능력 24건에 미치지 못해 다소 여유가 있지만 화장의 급증 추세로 볼 때 급명간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화장시설이 부족한 전남과 수도권에서 광주로 몰리고 있어 자칫 장례를 제때 치를 수 없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남이나 서울은 이미 화장 예약을 못해 장례를 2~3일 연기하는 등 유가족에게 이중 고통을 주는 일도 비밀비해하다고 한다. 화장시설의 공급이 수요

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예약시간을 크게 변했다. 화장률이 현재 70%에 이르고 매장 관습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앞으로 이 같은 장묘문화의 변화는 더욱 가속될 게 확실하다. 하지만, 화장시설이 장묘문화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영랑공원의 경우 지난해 하루 평균 13건이던 화장이 올해는 20건으로 급증했다. 아직은 하루 최대 수용 능력 24건에 미치지 못해 다소 여유가 있지만 화장의 급증 추세로 볼 때 급명간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화장시설이 부족한 전남과 수도권에서 광주로 몰리고 있어 자칫 장례를 제때 치를 수 없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남이나 서울은 이미 화장 예약을 못해 장례를 2~3일 연기하는 등 유가족에게 이중 고통을 주는 일도 비밀비해하다고 한다. 화장시설의 공급이 수요

NGO 칼럼

김진



사전적 의미의 기부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해 돈이나 물건을 대가 없이 내놓는 활동이다. 하지만, 기부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주는 것만이 아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아동과 청소년, 몸이 약한 노인까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돈이 없어도 아이들을 위해 책을 읽어줄 만한 힘만 있다면 가능하다. 기부에는 연령이나 성별의 제한이 없다. 최근 새로운 기부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능력나눔'은 우리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부의 다른 모습이다. 능력

를 결정할 수 있으며, 능력을 타인에게 베풀고 알려주면 미래의 직업을 직접 체험하고 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부는 자신이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 같지만, 준 것보다 더 큰 것을 마음에 얻게 된다. 자신의 작은 나눔에 밝게 웃으며 기뻐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서 보람과 뿌듯함을 얻게 된다.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하는 일을 한 사람과 그 사람으로 인해 희망을 찾아가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부다. 기부는 결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눔은 여러 가지 형태

기부를 Redesign 하다

나눔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는 형태의 기부를 말한다. 단순히 재화를 나누는 것을 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는 점에서 보람이 크고 참여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전을 잘 짚는 학생은 도서지역에 찾아가 할머니·할아버지의 증명사진을 무료로 찍어줄 수 있고, 피아노를 잘 치거나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음악과 음식으로 치유해 줄 수 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의 공부방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이는 독거노인이 사는 집을 방문해 말동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청소년들에게 '능력나눔'은 자신의 진로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자리 잡고 있다. 자신의 적성과 취미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실제 진로

를 결정할 수 있으며, 능력을 타인에게 베풀고 알려주면 미래의 직업을 직접 체험하고 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부는 자신이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 같지만, 준 것보다 더 큰 것을 마음에 얻게 된다. 자신의 작은 나눔에 밝게 웃으며 기뻐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서 보람과 뿌듯함을 얻게 된다.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하는 일을 한 사람과 그 사람으로 인해 희망을 찾아가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부다. 기부는 결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눔은 여러 가지 형태

기고

백부선



지난달 29일은 억울하게 강제적이고 불법적으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지 100주년을 맞는 국치일이다. 나라 빼앗겼다는 되찾은지도 65년이 되었는데도 일본은 아직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불법으로 합병한 사실을 감추고 있으며 엄연한 우리 땅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며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실어서 일본땅이라고 강조하는 뻔뻔스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불법으로 나라를 빼앗긴 그 사실을 상기하며 일본에게 크게 항의하고 더욱 각성하여 다시는 이런 수

해야겠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실제 체험해 본 70대 이상의 어른들이나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이 시점을 기회로 삼아 특별 계기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온 국민이 잘 이해하고 굳건한 국민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수출이 늘어나고 무역흑자가 획기적으로 많이 증가했다고 하며 기업체들은 성장하고 국력이 많이 신장됐다는 점이다. 영국 런던에서 판매되는 전자제품의

국치일 100년을 맞으면서

치를 당해서는 안 되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국민정신을 강화하고 국민통합과 국력신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지난 7월에 서울의 모 고등학교의 1학년생들을 상대로 해 국치일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고등학생들이 "그런 일이 있었나요?"라고 반문하며 놀라는 표정들이며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학생들이 과반수를 차지했다고 하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억울하게도 세계지도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살아져 버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의 나라를 잃어버린 기간이 이 행복을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훈훈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많아지길 기대하며, 능력나눔과 작은 실천을 통해 지역 사회에 나눔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굿네이버스 광주지부장>

30%가 삼성전자제품이라고 하며, 미국에서 현대기아자동차가 판매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기아차가 1개월에 1만대나 팔렸다고 하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전자산업 및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은 세계적인 선진산업으로 앞서가고 있으며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니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진 20개국 모임인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되었고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총회를 갖게 될 것도 국가에 큰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온 국민이 애국하고 온 국민이 화합하며 국민정신을 강화시키고 국가관이 투철해질 때 더욱 부강한 나라로 발전 될 것이며 다시는 1910년과 같은 수모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온 국민과 함께 굳게 믿는 바이다. <전 순천공고교장>

재고 늘어나는 녹차, 명품화·수출 확대로 해결해야

부모님은 전남 보성에서 녹차 농사를 지어 오셨지만 최근에 농사를 포기할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 이유는 녹차 소비는 그다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녹차 재배는 현재 전국에서 열들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중국산 싸구려 녹차까지 들어와 녹차 재고가 많이 쌓인 상태라고 들었다. 얼마 전에는 심지어 골로 유명한 제주도 가골 나무를 뽑고 거기에 녹차를 심기로 하고 재배 면적을 늘릴 거라는 발표까지 하는 걸 봤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녹차 밭이 더 늘어나기 전에 수요를 늘리는 방안을 찾아주

기 바란다. 예를 들면 녹차 밭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오솔길을 걷고, 녹차 탕에서 온몸을 풀게 만드는 연계관광객 유치방안 마련 등이다. 또는 녹차 음료를 더 개발하고, 녹차 비누와 녹차 화장품, 녹차 아이스크림, 녹차 술, 녹차 다이어트 식품 등을 더 개발해 수출을 해야 한다. 품질을 고급화하고 외국인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해 틈새 시장을 노리되 그것을 명품화와 수출로 풀어주어야만 지금 같은 녹차생산 증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남심민·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소비자 보호용 보험가입 완전 의무화 절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다. 인터넷에서 쇼핑사이트 검색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광고가 공짜로 물건을 준다는 내용인데 그런 속임수로 네티즌들을 낚시질 하려는 수작에 화가 난다. 또 광고와는 다른 제품을 배달하는 쇼핑물도 적지 않아서 자칫 엉뚱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판매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의 성능도 믿을 수 없고, 또 판매자에 대한 추적도 쉽지 않아 판매자의 판매책임감이 거의 희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예 속여서 판 뒤 둔만 챙기려는

약덕 사냥꾼에게 걸려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도 소비자원에 인터넷 쇼핑 관련 피해 신고만 무려 2만3000여 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지금은 신용사회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터넷 IT강대국이다. 그런데 이런 인터넷 사기나 네티즌을 우롱하는 상행위는 우리가 더 발전하는 데 발목을 잡는 행위이므로 관계 당국의 강력한 대응과 함께, 소비자 보호용 보험가입도 완전 의무화시켜서 건전한 IT 신용사회가 되도록 해야겠다. <오새리·광주시 동구 서석동

無等鼓

고려와 조선시대는 철저한 신분사회였다. 양반 아버지를 만나면 자식도 양반이요, 그 후손 또한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다. 왕조시대 세상의 주인은 왕실과 귀족, 그리고 당시 '국가'와 같은 존재인 왕에 충성하고 권력(權力)과 부(富)라는 반대급부를 쟁기는 양반계층이었다. 양반의 기반은 관직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 최상층부에는 왕명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력행사는 관리들에 의해 이뤄졌다. 3권분립 이전의 왕조시대 대민접촉을 했던 관리의 권한은 사실상 무소불위였다. 이처럼 막강한 힘의 원천인 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양반의 신분

을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다. 고려시대에 과거제도 도입으로 관원 선발의 기초적인 객관성이 유지됐지만 힘을 유지하려는 양반사회의 속성은 이를 가만두지 않았다. 권위 관리의 자제에게 벼슬을 물려주는 음서제도 도입과 함께 관리 임용은 급속하게 부패해졌다. 음서제도는 신라 때도

현대판 음서제



비슷한 방식이 있었지만 고려 성종대에 당나라, 송나라의 음부제(蔭祿制)를 들여와 5품 이상의 관직에 있는 중신의 아들에게 관직을 계승하면서 본격화했다. 음서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종실과 공신의 자손, 5품 이상 관료의 아들, 손자, 사위, 동생 등이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5품 이상 관리의 자제라고 해도 대상은 대체로 한 사람에 한정되었다. 음서제로도 관리가 되지 못한 고관 대작의 아들, 손자, 조카, 아우 등은 대가(代價) 제도로 기어이 관직 대열에 합류했다. 비록 대가제도로는 승진 단계가 정5품이었지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양반들의 부도덕한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외교부 특채 사실이 밝혀져 결국 유 장관이 사퇴했다. 외교부는 유 장관 딸이 특채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합격시키기 위해 관계 법령까지 위반했더니 이야말로 '현대판 음서제'인 셈이다. <박경림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인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어문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